

조선 시대 琉球 지식의 출처와 인용의 실제*

- 《冊封琉球使錄》을 중심으로 -

조영심**

〈차 례〉

- 들어가며
- 조선인의 《책봉유구사록》 인지
- 조선인의 《책봉유구사록》 인용의 실제
- 마치며

[국문초록]

조선 시대의 지식은 서적을 통해 전파되고 유통되었으며 체계를 형성해갔다. 특히 해외 지식의 경우 직·간접적인 방식의 인적 교류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으므로 서적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빈번했다. 유구에 대한 지식과 정보 또한 서적에 힘입은 바가 적지 않은데, 본고에서는 그중에서도 조선인들에게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冊封琉球使錄》을 살펴보았다.

《冊封琉球使錄》이란 책봉사로서 유구국을 직접 방문했던 중국의 사신들이 남긴 기록들을 통칭한 표현이다. 중국과 유구를 관계로 하는 책이기에 일견 조선과는 관계가 적어 보이지만, 유구와의 국교가 단절된 시기 조선인들에게는 유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문헌이었다. 본고에서는 魚叔權의 『稗官雜記』, 李敦中の 『同文廣考』와 俞萬柱의 『欽英』, 李義鳳의 『北轅錄』, 李萬運·李德懋의 『紀年兒覽』 補編, 黃胤錫의 『頭齋亂藁』, 柳得恭의 『古芸堂筆記』,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에 인용된 《冊封琉球使錄》의 기록을 살펴보았다.

위 텍스트들을 분석한 결과 조선 시기 《책봉유구사록》의 열람 형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먼저 陳侃의 『使琉球錄』은 16세기 중반 조선본 『사유구록』으로 간행될 정도로 중요하게 인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48025).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식되었으나 소실되어 어숙권의 『패관잡기』 이외에는 전하는 기록이 보이지 않고, 蕭崇業·謝杰의 『使琉球錄』은 李時珍의 『本草綱目』을 통해, 張學禮의 『使琉球紀』와 『中山紀畧』은 『說鈴』 등의 총서를 통해, 汪楫의 『琉球世續圖』는 王士禎의 『池北偶談』을 통해, 徐葆光的 『中山傳信錄』과 『奉使琉球詩』는 周煌의 『琉球國志略』을 통해 일부가 조선 지식인들에게 열람되었다. 《책봉유구사록》은 조선인들의 관심을 받는 유구 정보 자료집이 되어주었고, 조선 내 유구 지식의 형성과 확장에 기여했다.

[주제어] 유구국, 《책봉유구사록》, 『사유구록』, 『사유구기』, 『중산기략』, 『유구국지략』, 『지북우담』, 『설령』, 『유구세찬도』, 『중산전신록』, 『봉사유구시』, 장학례, 왕즙, 서보광, 주황, 유만주, 『흠영』, 황윤석 『이재난고』

1. 들어가며

조선인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琉球國에 대한 기록을 다수 남겼다. 개인문집, 연행록, 사행록, 필기잡록, 유서, 역사지리서 등 조선인들의 다양한 문헌에서 유구가 호명된다. 필자는 조선인들이 남긴 유구 관련 기록을 정리하여 자료화한 바 있는데,¹⁾ 이 기록들의 출처는 크게 직·간접적인 인적 교류를 통해 얻은 유구 정보 또는 국내의 서적을 통해 얻은 유구 정보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 말기부터 유구국과 관계를 맺었으며, 조선 시대에는 1392년을 시작으로 1868년까지 꾸준히 접촉이 있었다. 양국의 직접적인 접촉 형태는 크게 양국 사신이 각국을 방문하는 공식적인 교린, 북경을 경유하여 양국의 사절단이 접촉하는 경우, 유구에 표착한 조선인 또는 조선에 표착한 유구인의 송환을 계기로 이루어지는 접촉 세 가지가 있었고,²⁾ 조선인들은 이러한 직접적인 접촉과 더불어 유구를 방문했던 중국의 책봉사, 부산왜관의 일본인, 통신사행 중 만난 일본인 등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유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직·간접적인 인적 접촉과 이를 통해 남긴 유구 정보의 기록은 여

1) 연구자는 한국연구재단 주관의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로서 <조선인의 류큐(琉球) 기록 정리, 번역, 분석> 과제를 2021년에 진행하였다.

2) 하우봉, 『朝鮮과 琉球』, 아르케, 1999, 41쪽.

러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이에 반해 국내외 서적을 통해 유입된 유구 정보와 그 출처는 크게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그렇지만 조선 시대의 지식은 줄곧 서적을 통해 전파되고 유통되었으며 조선인들의 지식 체계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점을 상기해보는다면, 유구에 대한 정보와 지식에 있어서도 서적이라는 매개를 간과할 수는 없다. 특히 해외 경험에 제약이 컸던 조선에서 위의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해외 인적 교류를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되었기 때문에 유구 정보의 출처로서 서적을 살피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유구 관련 기록의 원천이 되는 문헌 가운데 조선인들에게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冊封琉球使錄》을 살펴보고자 한다.

《책봉유구사록》이란 책봉사로서 유구국을 직접 방문했던 중국의 사신들이 남긴 기록들을 통칭한 표현이다.³⁾ 중국과 유구를 관계로 하는 책이기에 일견 조선과는 관계가 적어 보이기 때문인지 아직까지 한국 연구자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한 텍스트이기도 하다.⁴⁾ 그렇지만 《책봉유구사록》은 유구국과의 사신 왕래가 단절된 시기 조선인들에게 유구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서적이었다. 이에 2장에서는 조선인들이 《책봉유구사록》을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3장에서는 조선인들이 《책봉유구사록》을 인용하고 있는 실제 기록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 시대 유구 정보의 현황과 확장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3) 《冊封琉球使錄》은 《使琉球錄》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夫馬進 外 6人, 『使琉球錄解題及研究』, 宜野灣: 榕樹書林, 1999에서는 중국 사신의 유구 사행 기록을 《使琉球錄》으로 통칭하고 있다. 그런데 1534년도의 책봉사 陳侃의 『使琉球錄』, 1579년의 책봉사 蕭崇業·謝杰의 『使琉球錄』, 1606년의 책봉사 夏子陽의 『使琉球錄』과 같이 『使琉球錄』이 고유명사라도 쓰이기에 혼동의 우려가 있어, 본고에서는 《冊封琉球使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4) 《책봉유구사록》에 온전히 주목한 연구로는 조영심, 『사유구록(使琉球錄)의 조선 간행과 16세기 조선의 관심』, 『열상고전연구』 54집, 열상고전연구회, 2016 정도가 있다.

2. 조선인의 《책봉유구사록》 인지

조선 초기에는 조선의 사신이 유구국을 방문한다거나 유구 사신이 수차례 조선을 찾아와 국교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조선 사신의 유구국 방문은 몇 차례 진행되지 못하고 단절되었으며⁵⁾ 유구국을 방문했던 사신들이 남긴 유구 관련 기록이 현전하지 않는다. 유구국 사신의 조선 방문은 조선 사신의 유구국 방문에 비해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뤄졌고,⁶⁾ 조선에서는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유구국에 관한 정보를 얻기도 했으나⁷⁾ 이마저도 16세기를 전후하여 막을 내린다. 이후 조선 국내에 머물렀던 유구인은 조선에 표착한 표류민들뿐이었는데, 당시 동아시아의 의사소통 문자였던 ‘한문’에 익숙하지 않았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에게 유구국의 정보를 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⁸⁾ 한편, 청나라 시기가 되면 북경에서 조선과 유구의 진공사 또는 유구의 공생들이 조우할 수 있었고 조선 연행사들의 기록 속에 유구 사신 및 공생과의 교류가 누차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이밖에도 유구를 방문했던 중국의 책봉사, 부산왜관의 일본인, 통신사행 중 만난 일본인 등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유구 정보를 획득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간접적 해외 인사와의 접촉은 대체로 비정기적이며 제한적이었다. 대부분의 조선인은 위와 같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얻을 수 없었다. 이보다 많은 조선인들이 유구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던 방법은 서적

5) 조선에서는 유구국에 3차례 사신을 보냈다. 1416년 1월 통신관 전호군 李藝와 1430년 7월과 1437년 7월의 金原珍의 유구 사행이 있다.

6) 유구국 사신은 (위사의 문제를 제외하고) 37차례 조선을 내빙했다. (하우봉, 앞의 책, 134~135쪽)

7) 1462년(세조8) 유구국 사신의 선위사 李繼孫은 정사 普須古, 부사 蔡璟과 중국통사 康致和를 통해 유구국의 풍속, 의복, 병기, 형벌, 酒醕鹽醬, 歌舞, 곡식, 天竺酒 주조법, 土産, 지세, 궁궐 제도 등을 문답하고 『聞見事目』을 만들어 진상했다. 『조선왕조실록』 세조 8년 임오(1462) 2월 28일(계사) 또, 1501년(연산군7) 유구국의 사자가 내빙했을 때 宣慰使 成希顔이 국정을 詳問列記한 것이 『해동제국기』 말미에 부록 되어있다. 이재호,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 해제(解題), 한국고전번역원 (https://db.itkc.or.kr/dir/pop/heje?dataId=ITKC_BT_1377A)

8) 1497년 유구인 愁加云道老 등 10명이 제주에 표착했는데, 말하는 바를 알아들을 수 없어서 온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의복 색깔이나 머리에 쓴 삿갓’을 바탕으로 그들이 유구인임을 짐작할 수밖에 없었다. (허경진·조영심, 「조선인과 류큐(琉球)인의 소통 양상」, 『일어일문학』 54집, 대한일어일문학회, 2012, 386쪽)

을 통한 것이었다. 대체로 유구국의 정보는 중국 서적 통해 조선에 전해졌고 조선인들은 중국 문헌을 신뢰했다. 심지어는 북경에서 유구국 진공사와 대면한 상황에서도 유구인의 말보다 중국 문헌을 신뢰하는 정황이 발견된다. 다음은 1611년 동지검주청사 부사로 명나라를 방문한 이수광(1563~1629)이 유구국 사신인 蔡堅(?~?), 馬成驥(?~?)와 주고받은 문답을 정리해놓은 「琉球使臣贈答錄」의 일부이다.

문 : 귀국의 지방은 몇 리입니까?

답 : 토지가 편협해 조선의 布政所 한 곳만 못합니다. 동서로는 겨우 만 리 정도 이고 남북으로는 칠천 리입니다.

【『續文獻通考』에 이르길, 유구는 가장 작으니 땅이 만리, 칠천리 된다는 말은 잘못이다.】⁹⁾

문 : 일본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답 : 만여 리 될 겁니다. 그 사이에 여러 섬이 있고 각자 나라를 이루어 유구와 일본에 조공합니다.

【『續文獻通考』에 이르길, 사츠마에서 발선하면 나흘만에 유구에 도착한다고 하니 이 이야기는 거짓이다.】¹⁰⁾

이수광은 당시 조선 국내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유구국 사신을 중국에서 만났고 그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그런데 위의 예시에서 이수광은 유구 사신의 답변 뒤에 명나라 王圻(1530~1615)가 찬집한 『續文獻通考』를 부기하여 유구 사신의 답변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사신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위치로서 의례 문필 실력을 갖춘 이들이 발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광은 직접 대면한 유구 사신들의 답변보다 중국 문헌을 신뢰했

9) 李睟光, 『芝峯集』卷9, 「琉球使臣贈答錄」, “問, 貴國地方幾里. 答曰, 壤地褊小, 不及朝鮮一布政所. 東西僅萬里, 南北七千里. 【續文獻通考曰, 琉球最小, 則地方萬里七千里之說, 謬矣.】”

10) 李睟光, 『芝峯集』卷9, 「琉球使臣贈答錄」, “問, 距日本幾許. 答曰, 可萬餘里, 其間有諸島, 各自爲國, 修貢于琉球日本. 【續文獻通考曰, 自薩摩開船, 可四日到琉球, 則此說謔矣】”

던 것이다.¹¹⁾

그런데 중국 문헌이라고 하더라도 옛 역사를 고증하는 내용에는 문헌마다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유구 한문학』의 저자 이성혜는 유구국 山南王인 ‘承察度’에 대한 기록이 문헌에 따라 상이하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의 正史인 『明史』 및 實錄에는 1387년 유구 산남왕 승찰도가 (중국에) 사신을 보내 조공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¹²⁾ 周煌(1714~1785)의 『琉球國志略』에는 같은 해에 산남왕 승찰도의 숙부 ‘汪英紫氏’가 사신을 보내 조공했다¹³⁾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⁴⁾ 유구의 역사 기록에 있어서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헌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거 조선 및 중국의 지식인들도 여러 가지 문헌을 섭렵하는 과정에서 충돌하는 내용을 발견했을 수 있다. 바다 멀리 떨어진 유구국 정보에 있어서는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문헌을 판단하기 위해 신중해야 했고, 이를 위해 유구 자료의 탐구를 지속해야 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선지 청나라 시기 유구 책봉사 일부는 자신의 유구 체험 견문과 함께 기존의 여러 문헌 정보를 종합하여 거질의 《책봉유구사록》을 집필한다.¹⁵⁾ 말하자면 청나라 시기의 《책봉유구사록》은 최신의 유구 체험 견문록

11) 이 문답에 앞서 이수광은 유구국 사신들과 한시를 창화하며 그들의 작시 능력이 부족해 창화하기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이로 인해 유구국 사신들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던 탓일 수도 있다. “우리가 관소에 도착하자 자못 은근한 뜻을 보내왔는데, 시문을 얻어 보물로 삼기를 원했으므로, 그 수답을 보고자 대강 지어주었다. 그러나 채견 등은 작시에 미흡해 함께 창화하기에 부족했다. (自僕等到館, 頗致慇懃之意, 願得所製詩文以爲寶玩, 故欲見其酬答, 略構以贈. 而堅等短於屬文, 不足與唱和耳. 李睟光, 『芝峯集』, 『琉球使臣贈答錄』)”

한편, 이수광이 『속문헌통고』를 통해 정정한 질문의 내용은 유구의 도로 이수 및 일본과의 거리로 국방에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 당시 양국은 국교를 맺은 상태가 아니었기에 민감하게 여겨지는 정보에 대해 유구 사신들이 일부러 왜곡된 정보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본고의 논지는 이수광이 유구국 사신의 답변보다 중국의 문헌을 신뢰했다는 데 있으므로 각주를 통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부기해놓는다.

12) 『太祖高皇帝實錄』 洪武20년(1387) 12월 1일 2번째 기사, “琉球國山南王承察度, 遣使耶師姑, 進表獻馬三十四, 賀明年正旦.”

13) 周煌, 『琉球國志略』 卷三, “二十年, 王遣亞蘭匏等貢方物, 進皇太子箋, 獻馬. 山南王承察度叔汪英紫氏, 山北王帕尼芝, 亦各遣使入貢.”

14) 이성혜는 이 무렵 산남왕 승찰도와 숙부 왕영자 일파 사이의 권력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문헌에 따라 기록이 다른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그리고 왕영자 일파가 권력을 차지했으나 명나라의 눈치를 보아 곧바로 ‘산남왕 왕영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산남왕 승찰도의 숙부 왕영자’로 문제가 되지 않게끔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성혜, 『유구 한문학』, 산지니, 2022, 120~129쪽)

이자 유구 정보의 최대 자료집인 셈이었다. 그래서인지 조선 후기가 되면 ‘유구를 직접 사행’한 ‘중국인이 작성’한 《책봉유구사록》에 대한 관심이 종종 보인다. 다음은 정조가 이서구(1754~1825)와 1796년에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내가 승지 李書九에게 이르기를,

“『琉球國志略』을 謄書해 둔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 연전에 유구국에서 표류해 온 사람이 나왔을 때 확인받은 것이 있었는가?”

하니, 이서구가 아뢰기를,

“표류해 온 사람들은 모두 어리석어서 확인해 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琉球國志略』은 과연 신의 집에 간직하고 있습니다.”¹⁶⁾

위의 대화에서 정조가 확인하고자 한 『유구국지략』은 청나라 관료 周煌의 《책봉유구사록》이다. 그는 1756년 유구국왕 尙穆의 책봉 부사로서 유구를 사행한 뒤 이때의 체험 전문과 기존의 여러 문헌에 대한 고증을 겸비하여 6책 16권의 『유구국지략』을 집필하였다.¹⁷⁾ 중국 지식인이 실제 체험한 최신의 유구 전문에 더불어 과거의 중국 문헌들을 집대성한 방대한 유구국 자료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조선의 왕인 정조의 귀에도 들어오게 되었고 평소 유구의 五軍統制 제도와 선박 제도에 관심이 있었던 정조는 책의 소재를 이서구에게 묻게 된 것이다.¹⁸⁾ 이서구는 『유구국지략』을 家藏하고 있

15) 특히 청나라 시대에 들어서면 《책봉유구사록》의 볼륨이 커진다. 汪楫(1684년 사행)의 『使琉球雜錄』 5권, 徐葆光(1721년 사행)의 『中山傳信錄』 6권, 周煌(1759년 사행)의 『琉球國志略』 16권, 李鼎元(1802년 사행)의 『使琉球記』 6권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황의 『유구국지략』은 「採用書目」을 상세히 밝히고 있어 문헌 연구에 도움이 된다.

16) 『일성록』 정조 20년(1796) 6월 19일, “予謂承旨李書九曰, 琉球國志略聞有所謄置者. 年前琉球漂人出來時, 有所徵信乎. 書九曰, 漂人皆愚蠢無足徵信, 而志略果藏在臣家矣.”

17) 1757년 간행된 중국간본과 일본식 훈독 표기인 가에리텐(返り点)을 달아 1831년 간행 일본간본이 있다. 琉球·沖繩關係貴重資料デジタルアーカイブ에서 두 판본 모두 확인 가능하다. (<https://shimuchi.lib.u-ryukyu.ac.jp/search?collection=All&kywd=琉球國志略>)

18) 정조는 『유구국지략』을 언급하기 이전부터 유구의 五軍統制 제도에 관심을 보였고, 『弘齋全書』 「軍旅大成」, 1795) 戰攻에 쓰일 수 있는 선박의 개발을 언급하며 신숙주가 唐, 倭, 琉球의 선박 제도를 절충한 일을 거론하는 등(『弘齋全書』 「日得錄」八, 政事三, 1795) ‘軍旅’와 관련된 주제에

다고 답했는데, 함께 백담시파를 형성했던 유득공(1748~1807)과 이덕무(1741~1793)도 이 책을 언급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3장 4절에서 후술 하도록 한다.

한편,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책을 抄書하는 기준을 설명하며 유구국 기행문을 읽고 兵學으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가령 『說鈴』가운데에 유구국 기행문과 같은 서적류는 마땅히 兵學이 될 것이니 채록하고, 농사나 醫學 등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집에 있는 서적을 고찰하여 새로운 학설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에 채록하도록 하여라.¹⁹⁾

『說鈴』은 청나라 吳震方(?~?)이 청나라 초기의 필기잡록 등을 모아 편찬한 총서로, 前集에 張學禮(?~?)의 “使琉球紀畧”이 실려 있다. 표제와 목차에는 張學禮의 “使琉球紀畧”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663년 유구국왕 尚質의 책봉 정사로서 유구를 사행한 장학례의 『使琉球紀』와 『中山紀畧』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위의 예시에서 정약용은 아들들이 장학례의 유구국 기행문 등을 읽고 兵學으로 삼아 채록하기를 바랐는데, 이후 유구국 기행문을 재론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내용을 언급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조의 총신이었던 정약용 또한 정조와 비슷한 관심 아래 유구국 기행문에서 선박 제도를 살펴볼 것을 당부했던 것은 아닐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²⁰⁾ 조금 더 후대로 가면 이규경(1788~1856)은 거질의 『오주연문장전산고』를 집필하면서 琉球史의 근거로 삼은 서적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서 유구에 관심을 보였다.

19) 정약용, 『與猶堂全書』卷21, 「答二兒【以下康津謫中書】」, “假如說鈴中琉球紀程之類, 當爲兵學而採之, 凡有農醫諸說, 先考家中所有書籍, 知其新說然後鈔之.”

20) 유구의 五軍統制 제도와 전함 제도에 관심을 보였던 정조는 정약용에게 『兵學通』을 하사하며 정약용이 문무의 재주를 갖추고 있다고 상찬한 적이 있다. (『與猶堂全書』, 「跋兵學通」) 장학례의 『사유구기』와 『중산기략』에는 유구의 군제나 병역 등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책봉사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유구는 본국에 반드시 역사책이 있으련만 중국에 흘러 들어온 것은 보지 못하였고, 다만 중국 사신들이 기록한 것으로 충분히 근거가 될 만한 것이 있으니, 徐葆光的『使琉球記』, 張學禮의『使琉球記畧』, 청나라 周煌의『琉球國志略』4권, 청나라 王士禛의『琉球世續圖』이다.²¹⁾

19세기 조선에서는 유구의 서적을 직접 구해볼 방법이 없었고 중국을 경유하여 입수해야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든 이규경에게 전해진 유구 본국의 역사책은 없었다. 대신 이규경은 중국 사신들의 기록이 유구국의 역사를 서술하는 데에 충분히 근거가 될 만하다며 《책봉유구사록》 몇 종을 열거한다. 유구에 대한 정보원으로서 역사책에 버금가는 것으로 《책봉유구사록》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중국 사신의 《책봉유구사록》의 중요성을 진작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유구에 대해 실증적으로 기록한 최신의 정보이자 중국 지식인이 작성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위 예시들을 통해 이 책들이 당대 조선에 들어와 있었던 정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책봉유구사록》의 실제 열람 형태와 인용 양상 및 그 특징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3. 조선인의 《책봉유구사록》 인용의 실제

2장에서는 중국 문헌을 신뢰했던 조선인들이 중국인 유구 책봉사가 남긴 《책봉유구사록》에 관심을 보였으며, 이것을 역사책에 버금가는 자료로 인식하는 태도를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실제 조선인들의 텍스트 속에 인용된 《책봉유구사록》의 열람 형태와 그 인용 양상을 면면히 살펴볼 것이다.

21)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經史篇○史籍類, 「史籍總說」 外國史, “琉球, 則本國必有史策, 而未見流入中國者, 但有中原使价所記, 足爲可據者. 有徐葆光使琉球記, 張學禮使琉球記畧, 清周煌琉球國志略四卷, 清王士禛琉球世續圖.”

1) 어숙권의 『패관잡기』

조선 중기의 학자 어숙권(?~?)의 『稗官雜記』는 여러 문헌을 인용하여 역사적 사건 등을 잊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해 둔 텍스트이다.²²⁾ 총 7편의 기사에서 유구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 중 3편에서 명나라 시기의 유구국왕 尙淸의 책봉 정사 陳侃(1489~1538)의 『使琉球錄』을 인용하고 있다.

표1. 『패관잡기』의 《책봉유구사록》 인용 기록

| 저자 | 저서 및 기사명 | 인용 내용 | 인용 『사유구록』 |
|--------------|----------|---|--|
| 魚叔權 (?~?) | 『稗官雜記』 1 | 한문 문장력을 볼 수 있는 유구국 증산왕의 주문(奏文) | 陳侃 (1489~1538, 1534년 사행) 『使琉球錄』 |
| | 『稗官雜記』 2 | 진간 일행이 귀국길 바다에서 만난 풍랑 | |
| | 『稗官雜記』 4 | 직접 체험의 기록을 통해 유구의 실상을 알고자 하는 진간의 『사유구록』 저술 동기 | |

16세기 초 조선과 유구는 국교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내에서는 유구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지속되었다. 이에 진간의 『사유구록』은 조선 내부적으로 편집되어 조선본 『사유구록』²³⁾으로 간행되기도 했다.²⁴⁾ 비슷한 시기 국외 사정에 밝았던 어숙권 또한 『패관잡기』에 유구 관련 기록을

22) 이수인, 『패관잡기』 연구 시론 - 『한고관외사』 본 『패관잡기』 원본의 발굴 보고를 겸하여 -, 『한문학논집』 18집, 근역한문화회, 2000, 158쪽

23) 갑진자 동환자로 인쇄되었으며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간기는 없다. 四周雙邊, 內框縱 22.0×橫 13.9㎝, 10行20字, 上下內向三葉花紋黑魚尾 등의 판식과 지질로 보아 조선 중종 말기부터 명종연간, 즉 가정 중엽 이후부터 말엽 사이에 간행된 본으로 추정된다. 본서 안의 '養安院藏書' 또는 '敬/安'이라는 인장을 통해 임진왜란 및 정유재란 당시에 일본에 약탈된 본임을 알 수 있다. 가정 연간 중국에서 인쇄된 간본을 당시 조선에 필요한 대로 취사선택해 편집한 텍스트로 보인다. (藤本幸夫, 『陳侃撰 使琉球錄 解題』, 『使琉球錄解題及び研究』, 宜野灣 : 榕樹書林, 1999, 9쪽)

24) 진간의 『사유구록』은 16세기 초 조선과 유구의 국교가 단절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에 유입되었고 조선본으로 간행되었다. 조선에서 이 책을 간행하게 된 과정과 그 목적 등에 대해서는 부기된 바가 없지만 이 무렵 조선을 내방하던 유구국 사신들이 더이상 조선을 방문하지 않으면서 이전까지는 이들을 통해 송환했던 유구 표류민 송환에 문제가 불거졌던 점, 이로 인해 중종이 유구까지의 거리, 즉 유구의 위치에 관심을 가졌던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진간의 『사유구록』에 복간에서부터 유구까지의 해로 사행의 일정을 자세히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소비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조영심(2016)에 자세하다.

남겼는데 모두 조선본 『사유구록』에는 생략된 내용이다. 즉, 어숙권은 조선본 『사유구록』을 인용하지 않고 진간의 『사유구록』을 열람하고 인용했던 것이다. 진간의 『사유구록』은 16세기 조선에 전파되어 관심과 주목을 받았던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패관잡기』 수록 기사는 각각 유구의 한문 실력을 보고자한 의도에서 인용되었거나 유구 왕복 시 수로 여정의 위험성 또는 유구에 대한 최신의 서적 『사유구록』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치 유구에 사신을 간다면 참고할 만한 서적과 그 바닷길의 위험성, 유구 왕부와의 한문을 통한 외교적인 소통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내용처럼 보인다.²⁵⁾ 어숙권의 『패관잡기』는 16세기 조선의 지식인이 당시로서는 최신의 유구 정보를 입수해 활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다.

2) 이돈중의 『동문광고』와 유만주의 『흙영』

다음으로 이돈중(1703~?)의 『同文廣考』와 이것을 재인용하고 있는 유만주(1755~1788)의 『欽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동문광고』는 필사본 형태로 전해지는 책으로 우리나라 및 주변국들의 역사와 지리 등을 서술하고 있다. 필자가 파악한 것으로는 규장각 소재 4책본(청구기호:奎6885)과 하와이대학 阪卷·宝玲文庫 소재 필사본 『동문광고』에 『琉球記』가 전한다.²⁶⁾

25) 조영심, 앞의 논문, 439~441쪽.

26) 설배환(2014)은 노태돈(1998)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며 3종의 『동문광고』가 현전한다고 밝히고, 각각의 추출 목차를 제시했다. (국립중앙도서관본 2책, 서울대규장각 一簣古本 2책, 규장각본(6885) 4책) 설배환(2014)에 따르면 규장각본(6885)에서만 「유구기」를 발견된다고 하는데, 확인 결과 하와이대학의 阪卷·宝玲文庫 소재 4책본(文書番号:OT020)에도 필사체는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한 「유구기」가 수록되어 있음이 발견된다. 류큐대학 소장본 『동문광고』는 ‘東西南北’ 4책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南책 즉 3책에 「유구기」가 전한다. 2021년 디지털화되어 『琉球·沖繩關係貴重資料デジタルアーカイブ』에서 열람 가능하다. (<https://shimuchi.lib.u-ryukyu.ac.jp/collection/other/ot02001>) (설배환, 「18세기 조선 士人の異域 인식 - 『欽英』의 『同文廣考』 옮겨 적기를 통한 고찰」, 『한국문화』 65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 139~140쪽 참고)

표2. 『동문광고』의 《책봉유구사록》 인용 기록

| 저자 | 저서 및 기사명 | 인용 내용 | 인용 『사유구록』 | 인용 출처 표기 |
|-----------------|-----------------|--|---|----------|
| 李敦中 (1703~?) | 『同文廣考』 「琉球記」 | 장학례가 강희 2년(1663년) 4월에 책봉신을 타고 복건을 떠나는 여정부터 시작해 이듬해 7월 10일 북경에 돌아와 복명하는 날까지의 일을 날짜 별로 기록. 천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 | 張學禮 (?~?, 1663년 사행) 『使琉球紀』 | 張學禮琉球記云 |
| | 『同文廣考』 「琉球記」 | 토산, 연향(빈객 맞이), 주택, 서책, 36성(姓), 임관 제도, 과거, 형벌, 장식(비녀), 의복, 언어, 중국 사신의 관소, 여성의 손문신 등 외모(머리카락의 길이, 눈썹 등), 시집을 가지 않은 여성의 삶, 왕성, 중산왕의 가묘, 천비묘, 사신 집대(연향), 유구인의 연주(세자 및 법사), 증추연, 편액 | 張學禮 (?~?, 1663년 사행) 『中山紀畧』 | 按琉球誌曰 |
| | 『同文廣考』 「琉球記」 | 공자묘 | 周煌 (1714~1785, 1756년 사행) 『琉球國志畧』 | |

『동문광고』의 「유구기」에는 장학례의 『사유구기』와 『중산기략』이 다량 인용되어 있고 주황의 『유구국지략』도 한 차례 보인다. 《책봉유구사록》 이외에도 『宋史』, 『北史』, 『隋史』, 『五組錄』 등이 인용되고 있다. 『동문광고』의 인용 방식은 독특한데, 『중산기략』과 『사유구기』를 여러 차례 교차 편집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하는 방식으로 인용하고 있다.

표3. 『동문광고』 소재 「유구기」의 《책봉유구사록》 인용 순서와 내용

| | 인용 서명 | 내용 요약 |
|---|---------|--|
| ○ | | 위치, 도서의 명칭과 비인류적인 언어과 형상, 국왕의 소박한 거처, 조세, 형벌, 사나운 풍속, 질병, 대체로 일본과 유사함 (위 내용은 鄭曉의 『吾學編』 또는 鄭曉의 텍스트를 인용한 이수광의 『芝峯類說』 「外國」, 또는 『芝峯集』의 「琉球使臣贈答錄」과 여지도류를 편집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
| ○ | 『中山紀畧』 | 유구의 토산, 제도, 의복 |
| ○ | 『中山紀畧』 | 언어 |
| ○ | 『中山紀畧』 | 사신 관소, 여성의 외모, 왕성, 중산왕 가묘, 천비묘 |
| | 『琉球國志畧』 | 공자묘 |

| | | |
|---|----------|--|
| ○ | 『使琉球紀』 | 강희 2년 4월 복건 출항 ~ 7월 1일 유구관 도착 |
| | 『中山紀畧』 | 사신에게 베풀어진 연향 |
| | 『使琉球紀』 | 책봉례 |
| ○ | 『中山紀畧』 | 유구인의 연주, 중추연, 편액 |
| | 『使琉球紀』 | 3월 12일 배에 올라 14일 나하항에서 발선, 이듬해 7월 10일 복명 |
| ○ | 『宋史』 | 유구의 위치, 병기, 세금, 언어, 의복, 전쟁 시의 살육, 선박(뱃목) |
| ○ | 『北史』 | 역사책 속의 국명 변화 |
| | 『隋史』 | 역사책 속의 국명 변화 |
| ○ | 陳留『五組錄』 | 두 나라를 섬기는 (중국, 일본) 이유, 유구국에 지나간 접대를 요구했던 중국 사신, 신을 공경하는 풍속 |
| ○ | 『使琉球紀』 | 두 텍스트의 준비에 대한 설명이 상이함 |
| | 倪中「天妃廟記」 | |

『동문광고』 「유구기」는 총 11개의 꼭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6개에서 장학례와 주황의 『책봉유구사록』이 인용되고 있다. 표3에서 보이듯이 『사유구기』와 『중산기략』이 번갈아가며 인용되고 있는데, 글의 맥락이 유기적으로 흘러가도록 『사유구기』와 『중산기략』 및 『유구국지략』을 교차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중산기략』의 경우 책 전반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불필요하게 상세한 설명들은 생략하고 요점만 발췌하고 있다. 『사유구기』의 경우 복건에 도착하기 이전 중국 내에서의 여정 부분은 생략하였고, 복건에서 발선한 시점부터 유구국 나하에서 사신의 업무를 마치고, 다시 복건에 돌아와 북경에 복명하는 일정까지 기록하되, 『중산기략』과 마찬가지로 상세한 설명과 묘사 등은 생략했다. 주황의 『유구국지략』에서는 ‘공자묘’에 대한 묘사와 설명만을 인용하고 있다. 유구의 공자묘²⁷⁾는 1674년에 창건되어 장학례가 사행한 1663년에는 없었던 건물이었으며, 당연히 그의 『책봉유구사록』에도 언급되지 않는다. 유학자로서 중요한 건축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장학례의 기록을 인용하는 중간에 주황의 『유구국지략』에서 해당 부분을 발췌 인용한 것으로

27) 유구의 공자묘 창건에 관련해서는 이성혜의 책을 참고하였다. (이성혜, 앞의 책, 66~74쪽)

보인다.²⁸⁾ 여기까지 장학례와 주황의 《책봉유구사록》은 이돈중의 편집에 따라 마치 한편의 유구 기행록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고 있다.

이후 이돈중은 《책봉유구사록》 및 기타 서적을 검비하여 유구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 중 한 꼭지에 해당하는 ‘天妃’에 대한 실증 부분에서는 장학례의 『사유구기』와 倪中 「天妃廟記」를 대조하고 그 차이까지 구분하고 있다.²⁹⁾ 「유구기」에는 아쉽게도 이돈중의 견해와 평가가 보이지는 않지만 유구에 대한 그의 다양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유만주의 『흙영』은 일면 讀書筍記를 염두에 두고 저술한 일기로서³⁰⁾ 저자의 다양한 독서 활동이 엿보이는데, 『흙영』속 유구 기록 일부에도 장학례의 《책봉유구사록》이 인용되고 있다.

표4. 『흙영』의 《책봉유구사록》 인용 기록

| 저자 | 저서 및 기사명 | 인용 내용 | 인용 『사유구기』 | 인용 출처 표기 |
|------------------------|----------------------|---|---|------------------------------------|
| 俞晚柱 (1755~ 1788) | 『欽英』 1781. 12. 7 | 賦法, 사환가의 書室, 襲爵, 通使之職 (중국과의 관계), 取土之法, 풍속, 용모와 복장 | 李敦中 『同文廣考』 「琉球記」에 인용된 張學禮의 『中山紀畧』 등 재인용 | 關『同文廣考』 【十七冊】 (1781. 12. 3.) |
| | 『欽英』 1783. 11. 21 | 책봉사신이 남긴 시문과 편액, 책봉사신을 위한 연회, 유구의 도로 이수, 풍속, 取土之法, 紫金大夫라는 명칭 (중국에서 온 것이라는 추정), 토산, 빈객연, 사환가의 書室 | 張學禮 (?~?, 1663년 사행) 『中山紀畧』 | 此康熙三年 【甲辰】 詔使所記其風俗 |

28) 그런데 주황은 1756년 유구를 사행하였고, 『유구국지략』은 1757년 간행되었다. 규장각 해제에는 「유구기」가 수록된 『동문광고』(奎6885)를 1754년 필사본이라고 소개하지만, 이보다는 후대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阪卷·宝玲文庫 4책본 『동문광고』는 1760년 필사된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琉球·沖繩關係貴重資料デジタルアーカイブ, 『同文廣考』 東, 해설 “저자는 이돈중으로 1760년의 저작이다.” (<https://shimuchi.lib.u-ryukyuu.ac.jp/collection/other/ot02001>))

29) 장학례는 친비가 ‘蔡氏’로 복건 지역의 매화소 사람이라고 하였으나(張學禮琉球記云, 天妃姓蔡氏, 閩安梅花所人) 예종의 「친비묘기」에는 친비가 都巡檢 ‘林愿’의 여섯째 딸로 어렸을 때부터 비법을 부려 바다를 건너다니며 여러 섬에서 구름을 타고 노닐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又按倪中天妃廟記云, 閩王時都巡檢林愿第六女, 生宋太平興國四年. 自幼通曉秘法, 長能乘席渡海雲遊諸島. 景德三年昇化, 自後常服朱衣飛騰海上, 土人立祠於興化城東南八十里大海中, 湄洲嶼與琉球相望之地, 海行者皆禱.) 두 예문 모두 李敦中, 『同文廣考』, 「琉球記」에 실려 있다.

30) 김하라, 「俞晚柱의 『欽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36쪽.

먼저 유만주는 1781년도에 이돈중의 『동문광고』 「유구기」를 독서하고 앞부분 일부를 발췌 인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張學禮의 『中山紀畧』가 재인용된다. 2년 후에는 『說鈴』을 독서하고 장학례의 《책봉유구사록》을 인용했다.³¹⁾ 흥미로운 점은 取士之法과 사환가의 書室에 대한 내용이 두 차례에 걸쳐 공통되게 인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각각은 學子이자 독서광이었던 유만주의 관심이 닿아있는 주제로, 유학을 숭상하던 유구에 대해서도 유사한 관심이 발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구에서 “文을 숭상하지 않고 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賢良하고 方正함으로(不尙文不考試, 學賢良方正)” 관리를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귀하다고 할 만하다.(絶可貴也)”며 과거 시험에 계속 실패해 온 거자³²⁾로서의 의식을 은연중 드러내기도 한다.

유만주의 《책봉유구사록》 인용은 이돈중과 같이 한 편으로 편집된 유구 기행문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관심에 따라 일부만을 발췌한 것이다. 따라서 두 인물의 《책봉유구사록》 인용은 그 목적을 달리하지만 《책봉유구사록》의 조선 내 인용과 재인용 과정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책봉유구사록》을 통한 18세기 유구 정보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

3) 이의봉의 『북원록』

이의봉(1733~1801)의 『北轅錄』은 이의봉이 1761년 서장관인 부친 이휘중(1715~1786)의 자제군관으로서 연경을 방문했을 때의 기록을 담은 연행록이다. 이의봉은 중국에서 유학하던 유구 관생 蔡世昌(1737~1798)과 鄭孝德, 그리고 유구 관생들을 가르치던 潘相(1713~1790)을 만나 필담을 나

31) 유만주는 1783년 11월 21일에 유만주는 장학례의 《책봉유구사록》를 비롯하여 『說鈴』에 수록된 『天祿識餘』, 『冬夜箋記』 등을 인용하고 있다. 또 이날의 유구 관련 기록 중 일부는 장학례의 『중산기략』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이돈중의 『동문광고』 「유구기」에는 생략된 내용이다. (杜三策題梅花詩百首於壁司, 其餘吟詠甚多) 이를 통해 유만주가 이날 본 유구 기록의 저본이 이돈중의 『동문광고』가 아닌 『설령』 속 장학례의 《책봉유구사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유만주를 ‘실패한 거자’로 표현하고 분석한 연구로 김하라(2011)을 참고할 수 있다.

는다.³³⁾ 당시 채세창과 정효덕은 유학을 한지 1년 가량된 신입 유학생들이었다.³⁴⁾

아직 중국에서의 배움이 길지 않았던 때문인지 채세창은 이의봉 일행과의 첫 만남에서 준비되지 않은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1761년 1월 8일 이의봉 일행은 채세창에게 유구 국왕의 성씨, 의복, 중국과의 거리, 중국에서의 유학 일정 등 다양한 질문을 했다. 그런데 이의봉이 당시의 유구 국왕의 세대를 문답한 후 “중국에는 어느 세대에 있었습니까(在中國何世)”라는 질문을 하자 채세창은 이에 답하지 못했다. 맥락상 유구국과 중국의 교류가 어느 대에 시작했는지, 혹은 유구국의 사신이 중국의 어느 대부터 와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이었을 것이다. 결국 채세창을 모시던 潘相의 아들이 홍무초년이라고 답했다. 중국의 아이도 아는 유구국의 역사를 모른다는 것은 조선인들에게 채세창에 대한 기대를 낮추기에 충분했다.³⁵⁾ 또한 채세창은 유구국이 조선에 방물을 바친 적이 있냐는 물음에는 모른다고 하며 대화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³⁶⁾ 이날의 필담을 통해 이의봉 일행은 채세창과 더이상 진전된 논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어렵פות이 판단한 듯하다.

1월 14일 다시 이의봉 일행은 채세창, 정효덕과 필담을 나누었다. 이번에는 유구 관생(중국 유학생)을 포함한 유구의 인재 선발 제도와 정효덕이 선물한 환약인 萬金丹의 복용법 등에 대한 내용만을 문답했는데, 모두 상대와 관련된 주제로 모름지기 채세창과 정효덕이 답변할 수 있는 질문들이었다. 유구국의 기타 제도들과 풍속, 토산, 언어 등에 대해서는 더 질문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이의봉은 필담 뒤에 중국의 문헌인 『五雜俎』와 『중산기략』를 통해 상세한 설명을 부기하고 있다.

33) 1761년 1월 8일, 9일, 14일, 25일에 필담 또는 서신 교환 등의 만남을 갖는다.

34) 이의봉, 『북원록』 권4, 1761년 8일(무신), “余又曰, 北來今過幾寒暑, 長月又將南歸. 曰(채세창), 昨歲始北學, 南歸當在皇上二十九年.”; 潘相, 『琉球入學聞見錄』, “鄭孝德字紹衣, 祖士絢正義大夫, …… 乾隆十九年孝德年二十, 隨婦翁紫金大夫蔡宏謨入講封乞省墓, 二十五年入學”

35) 이의봉, 『북원록』 권4, 1761년 8일(무신), “曰, 在中國何世. 蔡生沈吟, 不能對. 傍有一童子, 替答曰, 洪武初年. 觀其爲人, 明敏太過, 口鋒太銳, 此潘教習相之子, 年方十四, 至於琉球, 得國年紀, 蔡以國人, 猶不能對, 彼乃楚之童子也, 安能知國人所不能知.”

36) 이의봉, 『북원록』 권4, 1761년 8일(무신), “曰, 貴國以曾方物來獻我國, 知之乎. 曰, 不曾識, 請余造其室, 余諾而起, 潘童隨之.”

표5. 『북원록』의 《책봉유구사록》 인용 기록

| 저자 | 저서 및 기사명 | 인용 내용 | 인용 『사유구록』 | 인용 출처 표기 |
|--------------------|--------------------|---|--------------------------------------|-----------|
| 李義鳳 (1733~1801) | 『北轅錄』 1761年 14日 | 토산, 연향(빈객 맞이), 주택, 서책, 36성(姓), 입관 제도, 과거, 형벌, 장식(비녀), 의복, 언어, 중국 사신의 관소, 여성의 손 문신 등 외모(머리카락의 길이, 눈썹 등), 시집을 가지 않은 여성의 삶 | 張學禮 (?~?), 1663년 사행) 『中山紀畧』 | 按張學禮中山紀畧云 |

이의봉은 『중산기략』을 처음부터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약 절반 이상을 인용하고 있다. 마치 채세창과 정효덕에게 묻지 못했던 질문에 답하듯 다양한 내용을 인용했다.

3장 2절에서 살펴본 『동문광고』의 저자 이돈중은 이의봉의 부친인 이휘중의 둘째 형으로 이의봉에게는 숙부가 된다. 『동문광고』에서도 『중산기략』을 다량 인용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북원록』에도 『중산기략』이 다량 인용되고 있다. 다만 『동문광고』에는 생략된 내용이 많았지만, 『북원록』에서는 구태여 생략은 하지 않고 글자를 수정하는 정도로 인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차이점으로 들 수 있다. 각주 28번에서 서술하였듯이 『동문광고』의 필사 시기가 주황의 『유구국지략』이 간행된 후인 1757년 이후가 된다면, 1760~1761년에 집필된 『북원록』과 크게 멀지 않은 시기에 저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비슷한 시기 이돈중·이휘중 가문에서는 장학례의 《책봉유구사록》 또는 이 텍스트가 수록된 『설령』을 소장하고 있었고 이것이 구성원들에게 두루 읽혔던 것으로 보인다.³⁷⁾

4) 유구국 국왕 世系

이 절에서는 《책봉유구사록》을 인용해 유구국의 국왕 世系를 작성하고 있는 세 개의 텍스트를 살펴보고 그 실제 활용 모습을 예로 들어보고자 한다.

37) 한편, 이의봉의 외가는 달성 서씨 가문으로 「琉球國」을 정리해 신고 있는 『緯史』의 저자 서명응(1716~1787)은 외숙부, 1802년 유구 책봉사였던 李鼎元(1749~1812)과 교류했던 서형수(1749~1824)는 외사촌이 된다. 관련 자료를 보충하여 18세기 지식인들의 유구에 대한 관심과 저작에 대해 지면을 달리해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표6. 《책봉유구사록》을 인용해 ‘유구국 世系’를 작성한 텍스트 및 그 기록

| 저자 | 저서 및 기사명 | 인용 내용 | 인용 『사유구록』 | 인용 출처 표기 |
|---|------------------------------------|-----------|--|-------------------|
| 李萬運 (1723~1797), 李德懋 (1741~1793) | 『紀年兒覽』 補編 「琉球國世系」 | 유구국 국왕 世系 | 汪楫 (1626~1689, 1683년 사행) 『琉球世續圖』 | 此以下出汪楫琉球世續圖 |
| 黃胤錫 (1729~1791) | 『願齋亂藁』 二十二日庚辰 (1778년 6월 22일) | 유구국 국왕 世系 | 汪楫 (1626~1689, 1683년 사행) 『琉球世續圖』 | 出汪楫琉球世續圖 |
| 柳得恭 (1748~1807) | 『古芸堂筆記』 「琉球年代」 | 유구국 국왕 世系 | 周煌 (1714~1785, 1756년 사행) 『琉球國志略』 | 清翰林侍講周煌琉球國記略敘其國代云 |

먼저, 이만운(1723~1797)이 집필하고 이덕무가 교정, 보완한 『기년아람』 보편에 유구의 국왕 世系가 기록되어 있고, 그 출처를 “此以下出汪楫琉球世續圖”라고 기재하여汪楫(1626~1689)의 『琉球世續圖』에서 인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마찬가지로 황윤석의 『이재난고』에서도 유구국 국왕 世系를 열거하면서 왕즙의 『유구세찬도』를 인용하고 있다. 왕즙은 1683~4년 유구국왕 尙貞의 책봉 정사로 유구를 사행했는데 이때 『유구세찬도』를 사왔다고 한다. 왕즙은 사행 이전에 史官의 직을 맡고는 유구의 세차와 연혁에 대한 정보가 중국 내에 상세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유구에 입국하여 유구인들에게 관련 사항을 질의했으나 핑계 대고 답해주지 않자 몰래 祖廟의 神主를 적어오는 등, 다방면으로 유구국 세차와 연혁을 구하다가 『유구세찬도』를 사오게 되었다고 한다.³⁸⁾ 정리하자면 『유구세찬도』는 왕즙이 저술한 책이 아니라 미상의 유구인이 저술하여 유구국 내에서 유통되던 책이었는데 왕즙을 통해 중국에 전파된 것이다. 왕즙은 이 책을 다량 인용하여 『中山沿革志』 2책을 집필하고 황제에게 진상했다. 그런데 왕즙 다음으로 유구 책 봉사가 된 徐葆光(1671~1723)은 자신의 『中山傳信錄』에 (왕즙이 가져온)

38) 汪楫, 『中山沿革志』 卷1, 「中山沿革志序」, 【臣楫】備員史官, 常思搜羅放軼, 補舊乘之闕. 會有冊封之役, 入國, 首以此爲問, 皆謝不知. 世系沿革, 亦秘不以告. 蓋國有厲禁, 一切不得輕洩也. 嗣以諭祭故王, 入其祖廟, 預敕從吏具筆札, 俟行禮時密錄其神主以歸. 已又購得「琉球世續圖」一卷”

『유구세찬도』를 구할 수 없다는 기록을 남겨놓아³⁹⁾ 『유구세찬도』가 중국 내에서 그다지 유통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만운, 이덕무와 황윤석은 중국인도 찾기 힘들었던 『유구세찬도』를 어떻게 본 것일까. 이들은 조선인들에게 漁洋山人으로 알려진 청나라 시인 王士禎(1634~1711)의 『池北偶談』에 실린 『유구세찬도』를 보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왕사정은 청조풍 시의 확립자이자 신운설의 주창자로 조선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친 인물이며, 그의 『지북우담』은 18세기 조선인들의 텍스트에서 누차 언급되곤 한다. 이 『지북우담』 권2의 말미에 『유구세찬도』라는 글이 수록되어 있고 왕사정은 이 글 서두에서 『유구세찬도』는 왕즙이 유구에서 구해온 것임을 밝히고 있다.⁴⁰⁾ 『지북우담』 소개 『유구세찬도』는 왕즙의 『중산연혁지』와는 다르게 유구 국왕 각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대부분 생략하고 王名만을 간단히 기록하고 있다. 『기년아람』과 『이재난고』 역시 유구 국왕의 世系를 王名 위주로 나열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설명을 부기하고 있다. 설명을 부기한 유구국왕 ‘察度’ 옆에 『기년아람』은 ‘從王士禎池北偶談所記’, 『이재난고』는 ‘見王士禎池北偶談’이라는 주석을 달아 왕사정의 『지북우담』을 인용했음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기년아람』 보편과 『이재난고』에서는 『지북우담』 소개 『유구세찬도』를 인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유구국 국왕 世系를 기록하면서 유득공은 주황의 『유구국지략』을 인용한다. 유득공은 1778년 이덕무가 연경에 갔을 때 『유구국지략』을 구입해 왔다고 밝히면서⁴¹⁾ 이덕무를 통해 전해 받은 『유구국지략』 권2 「國通」의 내용을 발췌해 자신의 필기류 저작인 『古芸堂筆記』 2권에 「琉球年代」라는 제목으로 인용한다.⁴²⁾ 왕명과 함께 前王과의 가계를 함께 기

39) 徐葆光, 『中山傳信錄』 卷三, 「中山世系」, “今至國遍訪所謂世繼圖者, 不獨民間無其書, 即國庫中亦無其圖.”

40) 왕즙은 왕사정의 문인이었으며, 왕즙이 구해 온 『유구세찬도』와 사행 후 진상한 『중산연혁지』 등에 대해 왕사정은 그 경위를 소상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王士禎, 『池北偶談』 卷2, 「琉球世繼圖」, “予門人汪翰林舟次楫使琉球歸, 作中山沿革志進呈御覽. 云世系沿革, 彼國有厲禁, 秘不以告. 多方購得琉球世繼圖一卷, 今譯者以漢文釋之”

41) 유득공, 『古芸堂筆記』 卷2, 「琉球年代」, “清翰林侍講周煌琉球國記略敘其國代云 …(中略)… 戊戌, 李懋官入燕, 購此書而來.”

42) 『고운당필기』는 유득공이 검서관에 등용된 이듬해인 1780년부터 기록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

록한 것이 유득공「유구연대」의 특징이다.⁴³⁾ 이만운, 이덕무 및 황윤석의 기록과 유득공「유구연대」의 큰 차이점은 마지막 왕대에 대한 기록이다. 왕즉은 1683년 유구를 사행하였고, 주황은 1756년 유구를 사행하여 70년 이상 시간 차이가 벌어져 있었고 이 사이 유구 국왕은 세 차례 교체되었다. 이로 인해, 『기념아람』 보편과 『이재난고』에서는 1683년 이후부터의 국왕 世系를 『大清一統志』를 통해 보충하고 있다. 한편, 『유구국지략』에는 당시의 유구 국왕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으므로 유득공은 다른 텍스트를 참고할 필요가 없었다.⁴⁴⁾

이처럼 다른 텍스트를 인용하지 않고도 최신의 왕대까지를 모두 기록할 수 있는 『유구국지략』이 있음에도 『기년아람』 보편 및 『이재난고』에서 70년 이상 앞선 왕즉의 『유구세찬도』를 인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두 텍스트의 집필 시기에 각각의 저자들이 아직 『유구국지략』을 열람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덕무가 『유구국지략』을 입수한 것은 1778년의 일이다. 그는 이 해 3월 사은겸진주사의 서장관 심염조를 따라 연경을 방문하여 『유구국지략』을 발견하고 구입하여 7월 1일 한양으로 돌아왔다. 『기년아람』은 이덕무의 연행 이전인 1776년 이만운에 의해 작성된 것을 1777년 이덕무가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덕무가 『유구국지략』을 입수하기 이전에 『기년아람』 보편이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황윤석이 『이재난고』에서 유구국 世系를 기록하고 있는 날짜가 1778년 6월 22일이므로 이덕무

덕무가 1778년 입수해 온 『유구국지략』을 열람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김윤조, 「돌아온 필기류의 선편 『고운당필기』」, 한국고전번역원 古芸堂筆記 해제, https://db.itkc.or.kr/dir/pop/heje?dataId=ITKC_BT_1550A)

43) 예를 들어, “尙賢은 尙豐의 셋째 아들이고, 尙質은 尙賢의 아우이며 順治 5년이 웅립했다.”와 같이 인용하고 있다. (유득공, 『古芸堂筆記』 卷2, 「琉球年代」, “曰尙賢, 尙豐第三子. 曰尙質, 尙賢弟, 順治五年立.”)

44) 이만운·이덕무, 『紀年兒覽』 補編, 「琉球國世系」, “○尙純【世子早卒, 以下清一統志】○尙益【未請封卒】○尙敬【康熙五十七年襲封】; 황윤석, 『頤齋亂藁』 二十二日庚辰, “○尙純【世子早卒. 見清一統志】○尙益【未請封卒】○尙敬【康熙三十七年, 襲封. 并見清一統志】; 유득공, 『古芸堂筆記』 卷2, 「琉球年代」, “曰尙益, 尙貞世子. 曰尙敬, 尙益世子. 曰尙穆, 尙敬世子, 乾隆十七年立, 年十四.” 이만운·이덕무와 황윤석은 세자 신분으로 사망한 尙純(1706년 사망)과 尙益(1710년 즉위), 尙敬(1713년 즉위)에 대해 『清一統志』를 인용하고 있고, 유득공은 尙純은 기록하지 않고 尙益(1710년 즉위), 尙敬(1713년 즉위)와 1752년 즉위한 尙穆까지 인용하고 있다.

가 한양에 돌아오기 이전이었고 그 역시 이덕무 입수본 『유구국지략』을 접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⁴⁵⁾ 아마도 이덕무와 황윤석이 접근할 수 있었던 최신 유구 자료는 『지봉우담』 소재 『유구세찬도』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정리된 유구국 世系는 관련 문헌 기록을 고증하는 데 활용되기도 했다.

표7. 이덕무의 『琉球世續圖』 활용

| 저자 | 저서 및 기사명 | 인용 내용 | 인용 『사유구록』 | 인용 출처 표기 |
|--------------------|-------------------------------|-------------------------------------|---|--------------|
| 李德懋 (1741~1793) | 『靑莊館全書』 『淸脾錄』四 「芝峯詩播遠國」 | 이수광과 유구 사신들의 필담 중 유구국 世系에 대한 내용을 고증 | 汪楫 (1626~1689, 1683년 사행) 『琉球世續圖』 | 案汪楫琉球 世續圖 |

이덕무는 『청비록』에 지봉 이수광의 시가 먼 나라에까지 전파되었다는 기사를 실으면서 이수광이 남긴 『유구사신증답록』을 인용하고, 이수광과 유구 사신의 문답에서 유구 사신의 답변 부분을 『유구세찬도』를 활용해 고증한다.

지봉이 유구 사신에게 나라를 세운지 얼마나 되었는지 묻자, 답하기를 지금까지 250여 년이 지났고 24대가 전한다고 하였다. 국왕의 성은 尙이고 이름은 寧이라고 한다. 【왕즙의 『유구세찬도』를 살펴보면, 시조 舜天부터 尙寧에 이르기까지 가가 과연 24대였다. 그 후로 현재까지 또 7~8세대가 지났다.】⁴⁶⁾

이덕무는 주석을 통해 이수광의 질문에 대한 유구 사신의 답변이 타당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이때 왕즙의 『유구세찬도』가 근거 자료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8세기 중후반 조선 지식인들은 유구국 世系에 관심

45) 여기에서는 이덕무가 입수한 『유구국지략』이 황윤석에게 전달될 수 있었을지, 그들의 친분과 교류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물리적인 텍스트의 열람 가능성만을 이야기한 것이다.

46) 이덕무, 『靑莊館全書』『淸脾錄』四, 「芝峯詩播遠國」, “芝峯問琉球使臣立國久近. 答曰, 經今二百五十餘年, 傳二十四世. 國王姓尙(원자: 尙의 오기), 名寧. 【案注(원자: 汪의 오기)楫琉球世續圖, 自始祖舜天, 至尙寧, 果二十四世. 而其後至今, 又歷七八世.】”

을 보였고 정리해두려 했으며, 여기서 나아가 신뢰할 만한 중국 문헌(왕즙의 『유구세찬도』)을 바탕으로 과거의 기록까지 고증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5)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마지막으로 이규경(1788~1856)의 『五洲衍文長箋散稿』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 고급의 사물에 대하여 고증하고 해설한 책으로 중국의 문헌을 다수 인용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책봉유구사록》도 여러 종이 보인다. 관련해 2장에서 인용한 내용을 다시 가져와 본다.

유구는 본국에 반드시 역사책이 있으면만 중국에 흘러 들어온 것은 보지 못하였고, 다만 중국 사신들이 기록한 것으로 충분히 근거가 될 만한 것이 있으니, 徐葆光의 『使琉球記』, 張學禮의 『使琉球記畧』, 청나라 周煌의 『琉球國志略』 4권, 청나라 王士禎의 『琉球世繼圖』이다.⁴⁷⁾

이규경은 유구국 史書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대신해 유구를 고증할 수 있는 텍스트로서 《책봉유구사록》 4종을 언급하고 있다. 각각이 실제로 어떻게 인용되고 있는지 살피기 전에 위 예문의 주의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이규경은 서보광의 저작으로 『使琉球記』를 언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서보광이 유구 사행 이후 남긴 텍스트의 서명은 『中山傳信錄』과 『奉使琉球詩』이다. 『중산전신록』은 6책 6권으로 1721년 간행되었으며, 서보광의 유구 체험뿐만 아니라 유구에 관한 정보를 다양하게 모아놓은 일종의 자료집이다. 유구 사행 과정에서 지은 한시들은 『奉使琉球詩』에 기록되어 있다.⁴⁸⁾

47) 이규경, 『五洲衍文長箋散稿』, 『史籍總說 外國史』, “琉球, 則本國必有史策, 而未見流入中國者, 但有中原使价所記, 足爲可據者. 有徐葆光使琉球記, 張學禮使琉球記畧, 清周煌琉球國志略四卷, 清王士禎琉球世繼圖.”

48) 徐葆光 연구자인 鄒揚華에 따르면 『奉使琉球詩』는 『舶前集』, 『舶中集』, 『舶後集』 3부로 되어 있

어느 쪽도 ‘使琉球記’를 서명으로 하지 않고 있다. 이규경이 어째서 서명을 오기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장학례의 『使琉球記畧』은 실제로는 『使琉球紀』와 『中山紀畧』 두 텍스트를 아울러 칭한 것이다. 장학례의 《책봉유구사록》은 조선에서 단행본으로 유통된 것 같지 않고, 총서 속에 실려 조선인들에게 읽혔던 것으로 보인다.⁴⁹⁾ 2장의 정약용의 예시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說鈴』에 수록된 장학례 《책봉유구사록》이 읽혔을 가능성도 있다.⁵⁰⁾

다음으로 주황의 『유구국지략』은 1757년 6책 16권으로 간행되었다. 이규경은 ‘4권’으로 기록해 놓았는데 畧本 또는 이본을 보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규경은 3장 4절에서 살펴본 주황의 『유구국지략』 조선 입수자인 이덕무의 손자로 세대를 거듭해 주황의 『유구국지략』이 이덕무 가에 전해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왕사정(예문:王士禛)의 『유구세찬도』의 경우 저자와 작품에 혼동이 있다. 3장 4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유구세찬도』는 왕즙이 1683년 책봉사로서 유구를 사행하면서 구해 온 유구국의 국왕 世系圖로 왕사정의 『지복우담』에 일부 실려 있고, 조선인들은 『지복우담』을 통해 이 텍스트를 접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왕사정이나 왕즙이 저술한 텍스트는 아니지만 『지복우담』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왕사정의 텍스트로 설명한 듯하다.

이규경의 《책봉유구사록》 인용 양상은 다음과 같다.

는데, 일본 沖繩県立図書館의 東恩納文庫에 권1 『舶前集』이 소장되어 있고, 중국 蘇州圖書館에 『奉使琉球詩三卷附詞一卷』(雍正11刊), 중국 吳縣圖書館에 「文付」라는 부록이 첨가된 『奉使琉球詩』(雍正11刊), 중국 上海圖書館에 徐葆光의 문집인 『二友齋詩稿』에 「舶中集」이 실려 있다고 한다. (鄒揚華, 『徐葆光『海舶集』日文注釋』, 中國文聯出版社, 2003, 1~4쪽) 한편, 王春瑜, 『中國稀見史料第一輯』, 廈門大學出版社, 2007에 제10책에 徐葆光의 『奉使琉球詩』가, 王茵 選編, 『國家圖書館藏琉球資料三編』, 北京圖書館出版社, 2006에 徐葆光, 『海舶三集』(雍正間刻本)가 실려 있다고 한다. (童宏民, 「冊封副使徐葆光의 眼光: 『奉使琉球詩』의 分析を中心に」, 琉球大學 博士論文, 2014 참고) 본고에서는 鄒揚華의 책과 童宏民 논문에 수록된 徐葆光의 『奉使琉球詩』를 참고하였다.

49) 필자는 『說鈴』과 『龍威秘書』에서 장학례의 《책봉유구사록》을 확인하였다.

50) 이규경은 이웃에게 『설령』을 빌려 보았고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여러 차례 인용하기도 한다. (이규경, 『五洲衍文長箋散稿』, 「石舍利辨證說」, “偶借說鈴一冊于隣友, 繙閱有日.”)

표8.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책봉유구사록》 인용 기록

| 저자 | 저서 및 기사명 | 인용 내용 | 인용 『사유구록』 | 인용 출처 표기 |
|------------------------|---|---|---|---|
| 李圭景 (1788~ 1856) | 『五洲衍文長箋散稿』 (이하 동일) 「水行諸術辨證說」 | 바닷물로 인해 상처를 입었을 때 과과 술 및 약초 등을 섞어 목욕 해서 치료함 | 蕭崇業·謝杰 (1579년 사행) 『使琉球錄』 | 本草綱目引出使 琉球記 |
| | 「地球辨證說」 | (동해) 바다에 대한 묘사의 일부 | 張學禮 (?~?, 1663년 사행) 『使琉球紀』 | 使琉球記略 |
| | 「水土續辨證說」 | 바다에 대한 묘사의 일부 | | 徐葆光使琉球國 記略 |
| | 「寄象觀譯辨證說」 | 유구어(琉球語) 예시 | 張學禮 (?~?, 1663년 사행) 『中山紀畧』 | 張學禮使琉球記 |
| | 「板舞辨證說」 | 정월에 유구국 여성들이 널뛰기 놀이를 하는 모습 묘사 | 周煌 (1714~1785, 1756년 사행) 『琉球國志略』 | 偶閱清周煌尙書 琉球國志略... 志略徐葆光【皇明 學士嘗使琉球】云 |
| | 「水路朝天辨證說」 | 중국 척사가 유구국을 갈 때 탔던 封舟의 제도, 그림, 설명이 『유구 국지략』에 실려 있다. | | 載在清周尙書煌 使琉球著琉球志 略中 |
| | 「蕉布辨證說」 | 유구에서 다량 생산되는 파초(芭 蕉)와 그것으로 만든 파초포 | | 清周煌琉球國志 略【周煌官尙書乾 隆時人】 |
| | 「沙漏辨證說」 | 『유구국지략』의 모래시계의 그 림(玻璃漏圖)을 글로써 묘사 | | 清周煌琉球國志 略沙漏圖 |
| | 「營室制度辨證說」 | 유구의 가옥 제도 | | 周煌琉球志略 |
| | 「布帛錦緞辨證說」 | 유구의 토산품 파초포 | | 周煌琉球志略 |
| 「口嚼釀酒嘔酒辨證說」 | 유구에도 입으로 생활을 씹어서 만든 술이 있는데, 중국 사신들이 그 주조 과정을 듣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일화 | 按清周煌使琉球 著琉球志略 | | |
| 「飛魚辨證說」 | 날치(鯨) 묘사 및 서보광 시구 중 ‘文鯨鬣是翎’ 인용 | 按清尙書周煌琉 球國志略物產條 | | |

『오주연문장전산고』가 앞의 텍스트들과 다른 점은 ‘유구’를 설명하기 위해 서가 아니라 각각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책봉유구사록》을 발췌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책봉유구사록》 인용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오주연문장전산고』가 문헌을 다루는 방식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오주연문장전산고』는 유구의 특색이 될 만한 주제들을 잘 포착하여 《책봉유구사록》을 인용하고 있다. 널뛰기, 파초포, 입으로 씹어서 빚은 술(口嚼釀酒) 등의 주제

가 그러한데, 경우에 따라 유구의 특색과 조선의 풍속을 비교하여 설명을 덧붙이기도 한다.

청나라 주황이 유구를 사행하고 저술한 『琉球志略』을 살펴보면, 그 나라 여자가 입으로 생쌀을 씹어 빗는 술이 있었는데, 중국인들이 그것을 듣고는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입으로 씹어 빗는 술은) 거짓이 아닌 듯하다. 이것은 혹 우리나라에 (젓을 줄) 어미가 없는 아이나 먹일 젓이 없을 때, 여자가 생 멧쌀을 씹어 문드러지게 하여 즙을 내서 화로에 넣고 삶아서 자연스럽게 감주처럼 단맛이나게 만들어 아이 입에 부어주어 삼켜서 연명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유구는 쌀을 씹어 보리 없이 술을 빚으니 또한 다르다고 하겠다.⁵¹⁾

입으로 (쌀 등을) 씹어서 빗는 술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인용하던 중 청나라 주황의 『유구국지략』 속 기록을 인용하고, 나아가 조선의 풍속과 비교하고 있다. 『板舞辨證說』에서는 『유구국지략』을 인용해 유구국 여성들의 널뛰는 모습과 서보광의 관련 시를 기록한 뒤, 조선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널뛰기’ 놀이를 하는데, 유구국이 수만리 멀리 떨어져 서로 만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놀이가 같다는 것을 기이하게 여기고 있다.⁵²⁾ 한편, 『沙漏辨證說』에서는 주황의 『유구국지략』 권1의 ‘沙漏圖’⁵³⁾를 보고 이규경이 직접 그 모양새를 묘사하고 원리를 설명하기도 한다.⁵⁴⁾ 이처럼 『오주연문장전산고』는 여러 문헌들 속의 개별적인 정보들을 집합하고 변증하여 정보의

51)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口嚼釀酒嘔酒辨證說」, “按清周煌使琉球, 著琉球志略, 亦有其國女子口嚼生米釀酒, 而中國人聞之, 不飲云云, 則似非說謊。是或如我東無孀小孩, 無乳可吮, 則女子嚼生梗米, 成糲取汁, 煮置爐中, 則自成恬味如醴酪, 注于兒口, 嚥下延命同。然琉球嚼米, 無麵成酒, 亦一異也。”

52)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板舞辨證說」, “我東女子, 亦自正月元日至上元後, 靚粧艷服, 競作此戲, 名曰跳版。今琉球, 隔海屢萬里, 風馬牛不相及之地, 其女郎之戲, 酷相類焉, 甚可異也。”

53) 『유구국지략』에는 ‘피리쇄도(玻璃漏圖)’로 기재되어 있다.

54) 그 형상은 지금 세속에 남아있는 초롱 같은데, 기구 안에 유리그릇을 두었다. 악기 腰鼓와 비슷하다. 상층에 모래를 쌓으면 조금씩 아래로 새서 몇 시가 되는지 알 수 있다.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沙漏辨證說」, “其狀如今俗座燭籠, 機內置玻璃器。似樂器腰鼓筒。貯沙上層, 霏微漏下, 知爲某時也。”)

지식화 양상을 보여주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규경의 《책봉유구사록》 인용에는 몇 가지 오류가 보이기도 한다. 「奇象觀譯辨證說」에서는 유구어의 예시를 들면서 “張學禮使琉球記”를 인용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장학례의 『중산기략』을 인용하고 있다. 장학례의 『사유구기』와 『중산기략』를 구태여 구분하지 않았거나, 『중산기략』을 『사유구기』의 부록으로 간주했거나, 아니면 “使琉球記”를 서명이 아니라 ‘유구를 사행한 기록’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일 수도 있다.

한편, 「水土續辨證說」에서는 인용 서적의 저자를 잘못 기입하고 있다.

|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地球辨證說」 |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水土續辨證說」 | 張學禮, 『使琉球紀』 |
|--|---|---|
| 使琉球記略。白水一線，橫亘南北。舟子曰，過分水洋矣，此天之所以界中外者，海洋之水，綠白紅藍，歷歷如繪。汲視之，其清如一。 | 徐葆光使琉球國記略。大洋中白水一線，橫亘南北。即分水洋，此天之所以界中外者，海洋之水綠白紅藍，歷歷如繪。汲視之，其清如一。 | 白水一線，橫亘南北。舟子曰，過分水洋矣，此天之所以界中外者。隨見群魚鬣鬣，有人立者，有飛舞水面者，有作相撲狀者。魚之脊翅豎如大桅，周圍旋繞。舟子曰，水族聞封舟過海，歡忭來朝，此祥徵也。海洋之水，綠白紅藍，歷歷如繪。汲起視之，其清如一。 |

위 예문은 「地球辨證說」과 「水土續辨證說」에서 공통적으로 ‘바다’에 대해 묘사하는 부분이다. 「水土續辨證說」에서는 “徐葆光使琉球國記略”으로 그 출처를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서보광의 《책봉유구사록》에는 없는 내용이다. 서보광의 《책봉유구사록》을 인용하고 있는 주황의 『유구국지략』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대신 이 내용은 장학례의 『사유구기』에 기록되어 있다. 즉, 이규경은 장학례의 『使琉球紀』를 서보광의 『使琉球記(略)』라고 오기한 것이다. 본고 3장 5절 서두의 예문에서도 이규경은 서보광의 《책봉유구사록》의 서명을 『使琉球記』로 오기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규경은 서보광에 대해 크게 오인하고 있다.

徐葆光【皇明學士，嘗使琉球】云……（「板舞辨證說」）

皇明徐葆光有文鰩鬣是翎之句……（「飛魚辨證說」）

위의 기록처럼 이규경은 서보광을 ‘명나라인’으로 오인하고 있다. 실제로 서보광은 1671년(淸 康熙10) 출생해 1712년 진사가 되었고 1720년 유구 국왕 尚敬의 책봉사로 유구를 사행하고 돌아온 청나라 관료이자 문인이다. 사행 후 서보광은 유구 체험과 유구 관련 문헌 기록을 모아 6권 6책의 『중산전신록』을 간행하고, 사행 전후로 지은 한시를 모아 『봉사유구시』를 간행한다. 이 중 『중산전신록』은 중국(1721년)과 일본(1766년, 1840년)에서 여러 차례 간행되었고⁵⁵⁾ 『四庫全書總目提要』에도 그 서명이 전한다.⁵⁶⁾ 현재 한중일 여러 도서관에 여러 본의 『중산전신록』이 전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규경은 서보광에 대해서도, 서보광의 『중산전신록』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규경은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총 3차례 서보광을 호명하는데, 위에서 예로 든 「水土續辨證說」의 경우 서보광의 기록이 아닌 장학례의 기록을 인용하고 있고, 「板舞辨證說」과 「飛魚辨證說」에서는 주황의 『유구국지략』에 인용된 서보광의 기록을 재인용하고 있다. 「板舞辨證說」에서는 서보광의 『중산전신록』뿐만 아니라⁵⁷⁾ 서보광이 사행을 하며 지은 시를 모은 『봉사유구시』에 나오는 시구까지 재인용하고 있고⁵⁸⁾, 「飛魚辨證說」에서도 『봉사유구시』의 시구를 재인용한다.⁵⁹⁾ 그런데 이 『봉사유구시』는 조선 내에 유통되었던 흔적이 보이지 않고 현전하는 본 역시 매우 드물다.⁶⁰⁾ 이규경이

55) 1721년도 중국간본, 1766년도 일본간본, 1840년도 일본간본을 등을 琉球·沖繩關係貴重資料 デジタルアーカイブ에서 열람할 수 있다. 근대 이후의 복각본 등은 岩井茂樹, 「徐葆光撰『中山伝信録』解題」, 『使琉球録解題及び研究』, 宜野湾: 榕樹書林, 1999, 91~92쪽을 참고할 수 있다.

56) 『四庫全書總目提要』卷78 「史部·地理類存目七」에 『중산전신록』 6권이 소개되고 있다.

57)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板舞辨證說」, ① “徐葆光【皇明學士, 嘗使琉球】云, 正月十六日, 男女俱拜墓. 是日, 女子皆擊毬板舞爲戲. 板舞者, 橫巨板於木楹上, 兩頭對立, 一起一落, 就勢躍起四五尺許, 不傾跌欹側也.” (밑줄은 주황, 『유구국지략』과 공통된 내용)

58)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飛魚辨證說」, ① “徐葆光鵲踏花翻詞, 一板橫蹠, 兩頭起落, 雙雙瞥見飛仙駕. 翩反如燕身輕, 借勢低昂, 春風攤袖爭高下. 一邊乍踏鵲翻枝, 一邊已打鳥飛柘. 那霸正月, 彩虹齊跨, 鷺鴻不著鞦韆架. 掀動六尺輕槎, 縱然平地, 歸客猶謫, 羨他織趾會騰空. 凌波可學應無價云.” (밑줄은 주황, 『유구국지략』과 공통된 내용)

59)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飛魚辨證說」, “皇明徐葆光有文鯨鱓是翎之句”(「贈梁秀才【名鼎, 字廷器, 曾渡海至閩游學】」이라는 시에 이 구절이 전한다. 鄔揚華, 『徐葆光『海舶集』日文注釋』, 中國文聯出版社, 2003, 192~193쪽)

60) 鄔揚華는 중국에서 서보광의 『봉사유구시』가 ‘고본(孤本)’처럼 취급받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鄔揚華, 앞의 책, 2쪽)

『봉사유구시』를 보았을 가능성은 극히 드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봉사유구시』의 인용 또한 주황의 『유구국지략』에 인용된 내용을 재인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규경은 유구사를 집필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서 “서보광의 사유기”를 거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보광의 《책봉유구사록》을 직접 보지 못했으며 그 서명조차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고, 서보광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명나라인으로 오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장 5절 서두의 인용에서 서보광의 《책봉유구사록》을 정확한 서명이 아닌 “使琉球記”로 기재했던 것도 미지에서 연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水行諸術辨證說』에서 이규경은 『本草綱目』에 인용된 “使琉球記”를 재인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인용된 내용은 蕭崇業·謝杰(1579년 사행)의 『使琉球錄』에 수록된 내용인데,⁶¹⁾ 이규경은 저자를 생략한 채 “使琉球記”라고 출처를 기록했다. 실제로 李時珍(1518~1593)의 『본초강목』에는 저자명 없이 『使琉球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규경은 이 《책봉유구사록》의 저자 및 서명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使琉球記”, 즉 ‘유구를 사행한 기록’ 정도로 표기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규경은 서보광뿐만 아니라 소송업·사걸의 《책봉유구사록》도 실제로 보지 못했고 다른 문헌 속에 인용된 기록만을 열람했던 것이다.

이규경은 《책봉유구사록》의 가치를 알고 있었지만 《책봉유구사록》을 온전히 열람할 수는 없었다. 이것으로 19세기 조선 내의 《책봉유구사록》 유통 현황을 다소나마 엿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규경은 주어진 자료 내에서 유구의 특색을 뽑아 조선과 비교하거나 변증설의 주제에 대한 고증의 자료로서 적합하게 기록해 놓았다.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는 19세기에도 여전히 유구가 조선 지식인의 관심 속에 있는 나라였음을 보여주는 한편, 당시 조선 내 소재한 유구 관련 서적의 현황을 보여주어 조선 초부터 이어진 유구

61)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水行諸術辨證說』, “本草綱目引出使琉球記曰, 凡人爲海水鹹物所傷, 及風吹裂, 痛不可忍, 用蜜半斤, 水酒三十斤, 防風、當歸、羌活、荊芥各二兩爲末, 煎湯浴之, 一夕即愈.” 실제로는 소송업보다 앞서 유구를 사행한 高澄(1534년 사행)의 『操舟記』에 해당 대목이 먼저 등장한다.

기록의 진척과 한계를 연구해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되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⁶²⁾

4. 마치며

조선과 유구는 중화를 중심으로 한 질서 속에서 비슷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敵禮國이었다. 양국은 서로 교린을 하며 사신을 왕래하기도 했고, 국교가 단절된 후에도 양국 진공사가 북경에서 만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중국 태학에서 유학하는 유구 공생들에 대하여 유교 국가 조선의 지식인들은 호기심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이라는 이웃 국가를 염두에 두고 지정학적 위치를 재론하자면 조선과 달리 유구는 사츠마에 복속된, 중국과 일본에 兩屬된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적례국으로서든 적국의 종속국으로서든 조선의 입장에서 유구는 늘 인식의 영역 안쪽에 위치한 국가였음은 분명하다. 조선인 개개인이 유구에 대해 보인 관심의 목적은 다양하겠으나 큰 틀에서 유구는 동질감과 이질감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가깝고도 먼 이웃 나라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구에 대해 조선 지식인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기록을 남겨왔으며 본고는 그 기록의 출처 중 하나로서 문헌 정보, 특히 조선인들에게 신뢰 받는 텍스트였던 중국 사신의 《책봉유구사록》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가적으로 16세기에 진간의 『사유구록』이 조선에서 편집되어 조선본으로 간행되

62) 『오주연문장전산고』는 天文, 曆法, 數理, 時令에서부터 宗教, 經濟, 文字, 典籍, 西學, 制度, 習俗, 災異, 舟車, 冶金, 兵學, 武器, 種痘, 外來物種 등에 이르는 1416편의 광대한 변증설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에 따라 이규경의 경험이 반영되고 실용과 위민 의식이 발로된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주제들은 이규경의 지적 호기심을 기초로 한 박학의 결과물이다. 특히, 이규경의 경험이 부재할 수밖에 없는 해외 정보에 대해서 이규경은 편견 없이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 (김제식,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참고) 유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규경은 경험해본 적 없는 유구 관련 정보를 변증설의 주제에 맞춰 抄書하면서 대체로 簡記를 달지 않았고, 달더라도 조선과의 차이점을 부기하는 정도로 마무리짓고 있다. 이규경은 유구에 대한 정치한 분석을 통해 경제적 활용을 목적으로 유구를 인용했다기보다 19세기 조선 박물학의 일환으로 유구를 인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도 했으며, 18세기 정조는 주황의 『유구국지략』을 두루 구하기도 했다. 지식인들이 연행하며 개별적으로 《책봉유구사록》을 입수하여 주변인의 독서물이 되기도 했다. 조선인들이 즐겨 읽던 중국의 총서 속에 《책봉유구사록》이 수록되어 있어 조선인들에게 읽히기도 했다. 그리고 조선인들은 입수한 《책봉유구사록》에 기재된 유구 정보를 자신의 텍스트에 알맞게 인용하거나 활용해 나갔다.

본고에서 살펴본 《책봉유구사록》의 열람 형태를 정리해보자면, 먼저 진간의 『사유구록』은 16세기 중반 조선본 『사유구록』으로 간행될 정도로 중요하게 인식되었지만 전란으로 인해 약탈·소실되어 어숙권 이외에는 인용 기록을 찾을 수 없다. 한편 소송업·사걸의 《책봉유구사록》은 이시진의 『본초장목』을 통해, 장학례의 《책봉유구사록》은 『설령』 등의 총서를 통해, 왕즙의 『유구세찬도』는 왕사정의 『지복우담』을 통해, 서보광의 《책봉유구사록》은 주황의 『유구국지략』을 통해 전권이 아닌 일부가 조선 지식인들에게 열람되었다. 주황의 『유구국지략』은 이덕무가 직접 조선에 들여온 정황이 보이고 주변인들에게 읽히기도 했는데, 이덕무 가문에 이 책이 남아 19세기 이후가 되면 그의 손자 이규경을 통해 다시 인용되기도 한다. 이때 『유구국지략』의 일부가 소실되어 零本 형태로 열람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대체로 《책봉유구사록》은 조선인들에게 완본으로 읽히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책봉유구사록》은 조선인들에게 유구 정보의 원천이 되어주었고, 조선 내 유구 정보의 유통과 확장에 있어서 일정 정도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어숙권, 『稗官雜記』
- 유득공, 『古芸堂筆記』
- 유만주, 『欽英』
- 이규경, 『五洲衍文長箋散稿』
- 이수광, 『芝峯集』
- 이덕무, 『淸脾錄』
- 이돈중, 『同文廣考』
- 이만운·이덕무, 『紀年兒覽』 補編
- 이의봉, 『北轅錄』
- 정약용, 『與猶堂全書』
- 황윤석, 『頤齋亂藁』
- 徐葆光, 『中山傳信錄』
- 蕭崇業·謝杰, 『使琉球錄』
- 吳震方, 『說鈴』
- 汪楫, 『中山沿革志』
- 王士禎, 『池北偶談』
- 李時珍, 『本草綱目』
- 周煌, 『琉球國志略』
- 陳侃, 『使琉球錄』
-
- 이성혜, 『유구 한문학』, 산지니, 2022.
- 하우봉, 『朝鮮과 琉球』, 아르케, 1999.
- 夫馬進 外 6人, 『使琉球錄解題及ひ研究』, 宜野灣: 榕樹書林, 1999.
- 鄔揚華, 『徐葆光『海舶集』日文注釋』, 中國文聯出版社, 2003.
-
- 김영죽, 『『북원록(北轅錄)』의 1760년 북경(北京) 기록 - 자제군관(子弟軍官)과 동아시아 지식인 만남의 재구성』, 『大東文化研究』 90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5.
- 김윤조, 『돌아온 필기류의 선편 《고운당필기》』, 한국고전번역원 古芸堂筆記 해제, (https://db.itkc.or.kr/dir/pop/heje?dataId=ITKC_BT_1550A)
- 김채식,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김하라, 『俞晚柱의 『欽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설배환, 『18세기 조선 士人의 異域 인식 - 『欽英』의 『同文廣考』 옮겨 적기를 통한 고찰』, 『한국문화』 65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
- 이수인, 『『패관잡기』 연구 시론』 『한고관외사』 본 『패관잡기』 원본의 발굴 보고를 겸하여』, 『한문학논집』 18집, 근역한문학회, 2000.
- 이재호,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 해제(解題)』, 한국고전번역원

(https://db.itkc.or.kr/dir/pop/heje?dataId=ITKC_BT_1377A)

조영심, 『사유구록(使琉球錄)』의 조선 간행과 16세기 조선의 관심, 『열상고전연구』 54집, 열상고전연구회, 2016.

허경진 · 조영심, 「조선인과 류큐(琉球)인의 소통 양상」, 『일어일문학』 54집, 대한일어일문학회, 2012.

童宏民, 「冊封副使徐葆光の眼光 : 『奉使琉球詩』の分析を中心に」, 琉球大学 博士論文, 2014.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ttps://kyu.snu.ac.kr/>)

디지털장서각 (<https://jsg.aks.ac.kr/>)

한국고전번역원DB (<https://db.itkc.or.kr/>)

琉球 · 沖繩關係貴重資料デジタルアーカイブ (<https://shimuchi.lib.u-ryukyu.ac.jp/>)

朝鮮時代の琉球知識の出所と引用の实在

《冊封琉球使録》を中心に

曹永心*

朝鮮時代の知識は書籍を通じて伝播され流通し、体系を形成していった。特に海外知識の場合、直・間接的な方式の人的交流を通じて情報を得る機会が制限されたため、書籍を通じて情報を得る場合が頻繁であった。琉球についての知識や情報も書籍に支えられたことは少なくないが、本稿ではその中でも朝鮮人たちに何度も言及されていた《冊封琉球使録》を調べた。

《冊封琉球使録》とは、冊封使として琉球国を直接訪れた中国の使臣が残した記録を通称した表現だ。中国と琉球の関係を中心にする本であるため、一見朝鮮とは関係が少なく見えるが、琉球との国交が断絶された時期、朝鮮人には琉球に関する情報を提供する重要な文献だった。本稿では魚叔權の『稗官雜記』、李敦中の『同文廣考』と俞萬柱の『欽英』、李義鳳の『北轅錄』、李萬運・李德懋の『紀年兒覽』補編、黃胤錫の『頤齋亂藁』、柳得恭の『古芸堂筆記』、李圭景の『五洲衍文長箋散文』に引用された《冊封琉球使録》の記録を調べた。

上記の文献を分析した結果、朝鮮時期《冊封琉球使録》の閲覧形態は次のようにまとめられる。先に陳侃の『使琉球録』は16世紀半ば朝鮮本『使琉球録』で刊行されるほど重要に認識されたが、消失して魚叔權の『稗官雜記』以外には伝わる記録が見られず、蕭崇業・謝杰の『使琉球録』は李時珍の『本草綱目』を通じて、張學禮の『使琉球紀』と『中山紀畧』は『説鈴』などの総書を通じて、汪楫の『琉球世

* 延世大学 国文学科 講師

續圖』は王士禎の『池北偶談』を通じて、徐葆光の『中山傳信錄』と『奉使琉球詩』は周煌の『琉球国志略』を通じて一部が朝鮮知識人たちに閲覽された。《冊封琉球使錄》は朝鮮人たちの関心を受ける琉球情報資料集になってくれ、朝鮮内の琉球知識の形成と拡大に寄与した。

主題語 : 琉球, 《冊封琉球使錄》, 『使琉球錄』, 『使琉球紀』, 『中山紀畧』, 『琉球國志略』, 『池北偶談』, 『說鈴』, 『琉球世續圖』, 『中山傳信錄』, 『奉使琉球詩』, 張學禮, 汪楫, 徐葆光, 周煌, 俞萬柱, 『欽英』, 黃胤錫, 『頤齋亂藁』